

2004년도 IMF 총회 결과와 OECD

장 명 수

외교통상부 경제기구과장
msjang87@mofat.go.kr

IMF 총회는 형식적으로는 IMF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각국의 이사들이 IMF와 세계은행의 현행 정책과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이 두 기구가 세계경제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총회에서 논의되는 이슈는 현재 세계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금년도에는 세계경제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 저소득국 경제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도하 개발어젠다(DDA) 타결을 위한 노력, 국제금융위기예방활동 강화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브레튼우즈체제 출범 60주년을 맞아 IMF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도 일부 있었다. 본고에서는 금년도 IMF 총회 및 관련 회의결과를 정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OECD의 향후 과제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머리말

2004년도 IMF 총회¹⁾가 지난 2004년 10월 3일 미국 Washington D.C.에서 개최되었다. IMF 총회는 보통 2년간은 IMF 본부가 있는 워싱턴에서 개최되고 그 다음해 회의는 제3국에서 개최되는데 지난해에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2006년에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IMF를 잉태시킨 브레튼우즈체제가 출범한 지 60번째 생일을 맞이한 해이기도 하다.

IMF 총회에 앞서 IMF와 관련되는 여러 회의가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금년에는 10월 1일 중·후진 개도국들의 모임인 G-24회의가 개최되었고 10월 2일에는 IMF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 IMFC)와 세계은행의 개발위원회(Development Committee: DC) 회의가 각각 열렸다. 또한 10월 3일 이른 아침에는 금융

1) IMF 총회의 공식 명칭은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그룹 이사회 연례총회(Annual Meetings of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the World Bank Group)”이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IMF 총회”라고 부르고자 한다.

위키시 IMF가 회원국의 외환시장 개입 또는 국제수지자금 지원을 위해 체결한 차입협정인 일반차입협정(General Arrangements to Borrow: GAB)에 참가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모임인 G-10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와 같은 여러 회의에는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는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 승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하였는데 우리나라가 G24, IMFC나 DC 등의 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IMF 총회에만 참가하게 되었다.

IMF 총회는 형식적으로는 IMF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각국의 이사들이 IMF와 세계은행의 현행 정책과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이 두 기구가 세계경제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총회에서 논의되는 이슈는 현재 세계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금년도에는 세계경제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 저소득국 경제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 도하개발어젠다(DDA) 타결을 위한 노력, 국제금융위기에방화동 강화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브레튼우즈체제 출범 60주년을 맞아 IMF의 향후 업무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도 일부 제기되었으나 깊이 있게 토의되지는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금년도 IMF 총회 및 관련 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OECD의 향후 과제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IMF 총회의 주요 결과 요지

머리말에서 금년도 IMF 총회시 논의된 주요 이슈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였는데 이 주요 이슈에 대한 총회의 논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IMF 총회는 세계경제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각국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세계경제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은 물론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권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침체에서 벗어나 확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 성장세는 회원국들이 지속발전을 위한 건실하고 균형 잡힌 정책과 개혁을 적극 추진해나간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유가의 급등 및 불안정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회복에 하방위험(downside risk)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이 같은 위험을 극복하고 현재 시현되고 있는 경제회복세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 등 주요국의 재정 건전화, 구조조정, 경상수지 불균형 완화, 금융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적극적인 개혁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둘째, 총회는 저소득국 지원을 통한 세계빈곤축소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였는데, 특히 2015년까지 세계빈곤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 주된 목표인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실현을 위한 회원국들의 약속이행노력이 부족하다고 반성하고 빈곤국에 대한 경제지원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몬테레이선언을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빈곤국에 대한 기존의 지원재원 이외에 추가적인 재원마련방안들도 제시되었는데 국제금융지원제도(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IFF) 및 世界稅(Global Tax)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총회는 국제금융시장의 지속적 안정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회원국들은 IMF의 세계경제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기능, 금융위기 예방 및 해소기능 강화가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에 긴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앞으로 IMF가 행하는 회원국들에 대한 경제분석 및 정책권고 강화, 그리고 동 정책권고의 적정성 검토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계경제 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IMF의 감시기능 강화는 브레튼우즈체제 출범 60주년을 맞아 그간의 변화된 세계경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IMF가 추구해나가야 할 여러 방향 가운데 하나로도 제기되었다.

넷째, 총회는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는 개방되고 활동적인 다자통상체제가 세계경제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특히 선진국들이 막대하게 지원하고 있는 국내산업보조금을 감소시킴으로써 개도국들의 주요 수출품인 1차상품의 선진국시장 진출을 확대시켜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회는 지난 7월

WTO 회원국들간 합의된 July Package를 환영하는 한편, DDA협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회원국 모두 적극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3. IMF 연례총회 회의별 내용

금년도 제59차 IMF 총회에서 개최된 중요 회의는 IMF총회, 국제통화 금융위원회(IMFC) 회의 및 개발위원회(DC) 회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IMF 총회는 10월 3일 개최되었다. 총회는 보통 앞서 개최된 일련의 회의 결과를 정리하는 세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금번 총회 의장인 싱가포르 무역산업장관의 연설에 이어 IMF 및 IBRD 총재의 연설, IMFC 및 DC 의장의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와 각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 연설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연사의 연설을 살펴보면, 먼저 금번 총회 의장인 Lim Hng Kiang 싱가포르 무역산업장관은 금년이 브레튼우즈체제 출범 60주년이 되는 해로서 그간 IMF·IBRD가 세계경제성장과 개발을 위해 많은 업적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언급하고, IMF와 IBRD 두 기구는 효과적인 정책권고를 통해 회원국들이 건전한 거시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최근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실적에서 보듯이 빈곤감축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De Rato IMF 총재는 세계경제 회복세 유지, 중기 경제성장 강화 및 세계 금융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IMF 운영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발언하였다. 그는 세계경제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먼저 고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에 적절히 대처해야 하며 금리의 점진적 인상을 통해 보다 중립적인 화폐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또한 회원국들의 상호 노력을 통해 세계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미국은 재정적자를 과감히 줄여야 하며, 유럽국가들은 경제회복을 구조개혁 이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일본도 금융 및 기업부문의 취약점을 개선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추진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아시아 신흥국가들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환율정책을 취하는 것이 해당 국가는 물론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De Rato 총재는 이어 세계경제가 중기적으로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공적부채비율을 적정선까지 낮추고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함으로써 고령화사회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에너지정책에서 수요와 공급간의 보다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De Rato 총재는 또 세계금융시장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IMF가 세계금융시장을 효과적으로 계속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며 이를

통해 금융위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때로는 금융지원요청국들의 불합리한 지원요청은 거부함으로써 이 지원요청국들이 건전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IMF가 금융부문 개혁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 권고를 통해 세계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에 일조하고 있으며 이 같은 빈곤퇴치노력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원국들의 주도적인 역할(ownership)이라고 강조하면서 아프리카국가들이 주도하여 제안한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를 그 좋은 예로 제시하였다.

Wolfensohn IBRD 총재는 세계은행그룹이 그동안 빈곤퇴치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가 테러리즘이라는 전대미문의 범세계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빈곤감축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테러방지를 포함하여 지구상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빈곤을 감축하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MDGs 실현을 위해서는 지구환경보호, 빈곤감축노력 배가, 청소년에 대한 교육 강화 등 세 가지 일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회원국들이 빈곤감축을 위해 국제사회에 공언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매 회의 때마다 새로운 약속만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특히 자신이 중국과 보스니아 방문시 만난 현지인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빈곤퇴치 노력과 청소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페루 농민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안데스의 빙하를 되찾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노력을 호소함으로써 총회 참가자들의 열띤 박수를 받았다.

Snow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준비한 원고를 읽지 않고 즉석에서 연설을 하였는데 그는 60년 전 출범한 브레튼우즈체제가 그간의 세계경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IMF·IBRD가 전략적 검토(Strategic Review)를 시작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세계경제가 상당히 건전해졌다고 평가하고 이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화, 구조개혁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또한 빈곤감축과 교육기회 제공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많은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과도한 부채라고 지적하고 이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회원국들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이현재 재정경제부장관은 국별 연설 중 일곱 번째로 연설하였으며 지난 60년간 IMF·IBRD는 금융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해 큰 역할을 했으나 이제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IMF의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 우리 수석대표는 대규모의 불안정적(volatile) 자본흐름이 당해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급속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IMF가 감시기능과 위기에방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나아가 국제사회가 오늘날 대규모의 불안정적 자본흐름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모색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의 IMF 쿼터 규모가 당해국의 경제적 중요도 및 경제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체 쿼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IBRD는 세계빈곤감축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MDGs를 달성하는 것이 빈곤감축 노력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IT산업의 발전을 감안할 때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극복이 빈곤감축 노력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4.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의 주요 내용

연례총회에 앞서 10월 2일 오전에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사실 회의의 진행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조연설로 진행되는 총회보다는 24개 회원국이 모여 토의하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 회의의 분위기가 좀 더 친밀하고 흥미롭다. Brown 영국 재무장관이 주재한 IMFC 회의에서 De Rato IMF 총재는 세계경제가 30여년 만에 최고의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금융환경도 대체적으로 좋은 상황이지만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고 경고하였다. 그는 또한 세계경제가 향후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유가에 대한 적절한 대응, 보다 중립적인 통화정책 시행, 경상수지 불균형의 조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최근의 세계경제회복세를 활용하여 자국의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하는데 미국은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유럽과 일본은 경제성장세가 보다 확고해질 때까지 완화된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하며, 동아시아는 보다 유연한 환율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Greenspan 미연방준비이사회 의장은 세계화의 진행으로 GDP 대비 무역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저축을 자국내 산업에만 투자하려는 성향인 'Home Bias'도 지난 10년 동안 감소함으로써 세계경제에 활력소가 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최근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미국의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와 관련, 이를 대폭 줄이는 정부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비현실적이라고 하면서, 현재 미국은 수입이 수출보다 50%나 많아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매우 크지만 미국달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많은 것은 불균형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유연한 금융제도가 있기 때문이므로 이 같은 유연한 국제금융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Sarkozy 프랑스 경제장관은 빈곤축소를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며 이는 곧 가용재원 마련을 의미하는 것인데, 정부 예산이나 부채탕감액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탄소세나 투기

성 단기자본 거래에 부과하는 토빈세(Tobin's Tax)와 같은 세계稅(Global Tax) 부과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제통화금융위원회 회의 후 논의내용을 정리한 커뮤니케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우선 세계경제가 세계무역의 건실한 신장, 지원정책 및 긍정적인 금융시장조건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성장세 지속을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지속발전을 위한 건실하고 균형 잡힌 정책과 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긴급하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재정건전화(연금, 의료보장제도 개혁), 구조조정, 경상수지 불균형 완화, 금융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개혁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며, 통화정책은 점진적으로 중립적 기조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IMF의 세계경제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기능, 금융위기 예방 및 해소기능의 강화가 세계금융시장 안정에 중요하므로 경제분석 및 정책권고 강화, 정책권고의 적정성 검토 등이 필요하며, 개방된 다자통상체제는 세계경제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하고, 특히 개도국 발전에 중요하므로 DDA협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회원국 모두의 협조를 촉구하였다. 또한 IMF는 정책권고, 능력배양, 부채탕감을 포함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회원국들이 거시경제의 안정과 고성장을 이룩함으로써 MDGs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빈곤완화전략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를 기초로 하여 IMF가

저소득회원국들에 빈곤완화·성장지원금융(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PRGF)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하고, PRGF를 포함한 향후 저소득회원국 지원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G24 의장인 Manuel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장관은 MDGs 달성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GDP의 0.7%를 공적개발지원(ODA)으로 공여해야 하나 현재 약속이 실천되지 않고 있어 그 이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 개도국들의 IMF 쿼터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므로 개도국의 비중을 증대할 수 있는 새로운 쿼터제공방식(Quota Formula)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5. 개발위원회(DC) 회의 주요 내용

같은 날인 10월 2일 오후에는 개발위원회(DC) 회의가 개최되었다. DC 회의도 IMFC 회의와 마찬가지로 24개 회원국만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는데 위원회 명칭이 말해주듯이 세계의 빈곤극복과 개발문제를 논의하였다.

금번 DC 회의에서는 주로 천년개발목표 달성시 문제점과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원조달문제가 논의되었다. Manuel DC 의장은 많은 개도국, 특히 사하라사막이남 아프리카국가의 대부분이 MDGs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새로운 재

원 마련을 위해 국제금융지원제도(IFF), 세계稅(Global Tax) 및 자발적 공여 등의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Wolfensohn 세계은행 총재는 빈곤국들에 대한 원조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원조간의 조화가 필요하며 아울러 이에 못지않게 수원국들이 빈곤타파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해나가려는 주인 의식(ownership)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는 IFF, 국제조세체 등 새로운 형태의 원조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간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새로운 형태의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참석자간 의견이 상반되었는데 Krueger IMF 부총재와 프랑스가 지지 입장을 표명한 반면 미국과 스위스는 반대하였다.

DC 회의도 IMFC와 같이 회의 종료 후 커뮤니케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개도국들의 지속가능성장,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적정부채, 개방무역, 고용창출, 빈곤축소 및 지배구조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MDGs의 진전을 추구해야 하나 대부분의 개도국이 MDGs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부문보다는 민간부문에 의해 추진되는 경제성장이 새로운 일자리와 보다 많은 세원을 제공하여 빈곤축소를 위한 공공지출재원을 마련해주므로 국가가 주도하는 빈곤축소 노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 DDA협상의 성공은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빈

곤축소에 기여할 것이므로 회원국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촉구하고 동 노력에 대한 IMF와 IBRD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한편 경제성장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많은 개도국이 대규모의 사회간접자본을 필요로 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세계은행의 인프라조치계획(Infrastructure Action Plan)의 이행활동 확대 계획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빈곤완화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 PRS)이 거둔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다 효율적인 PRS 이행을 위해 2005년도 세계은행이 PRS 집행정책과 전체적인 조건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MDGs 달성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GDP의 0.7%를 ODA로 조속히 공여해줄 것과 국제개발협회(IDA)에 적절한 규모의 재원을 적기에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세계은행과 IMF가 국제금융지원제도(IFF),²⁾ 세계稅 등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것을 환영하고 외채과다빈곤국 채무경감제도(HIPC Initiative)의 운용시한이 200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6. OECD의 역할

금번 IMF 총회에서의 주된 논의주제는 사실 OECD 산하 각종 위원회에서도 그동안 꾸

준히 연구되어온 내용이다. IMF 총회에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세계경제 회복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각국의 구조조정과 개혁정책의 추진이 강조되었는데 OECD는 1980년부터 경제정책위원회 산하에 구조개혁작업반을 두어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균형문제 시정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지난 5월 개최된 금년도 OECD 각료이사회에서도 각국의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고령화 등 재정지출의 증가요인이 대두됨에 따라 재정건전화 시급하다는 데 각료들이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유가상승과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등의 영향이 향후 세계경제에 대해 주요 불안정 요인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OECD 기업지배구조조정위원회는 지난 1999년 채택된 기업지배구조원칙을 미국 엔론사태 이후 제기된 개선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이 원칙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 마무리해 각료회의에서 승인받은 바 있다. OECD는 DDA협상의 진전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는데 그동안 주로 비관세장벽, 무역원활화 및 서비스분야에 대한 분석자료들을 제공해왔으며 내년에는 DDA협상의 성공을 위한 주요 관건이 되는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조항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OECD는 개도국에 대한 성장지원을 위해

2) IFF는 개도국에 대한 원조자금이 부족할 경우 국제자본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개도국을 선지원한 후 추후 재원공여국이 납부한 개발원조자금으로 이를 상환하는 방안이다.

출범과 동시에 개발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를 발족시켜 세계빈곤문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 2001년 각료이사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 OECD와 회원국의 최상위 목표임을 확인하였으며 금년 각료이사회는 지속가능발전작업반을 중심으로 성취한 업적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OECD는 또한 경제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별 경제검토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회원국의 거시경제 전반을 평가하고 정책권고를 통해 바람직한 경제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개도국 지원을 위한 OECD의 노력이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년도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된 회원국 확대전략을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하게 추진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새로운 주역(player)들을 받아들이는 한편, 비회원국들에 대한 사업(Outreach Project)을 보다 활성화하여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들에게도 정책 어젠다를 설정하는 데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회원국 확대 및 비회원국 관련 사업은 OECD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치·경제질서하에서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에 대해 선도적 역할을 계속 수행해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

히 지난 5월 OECD 각료이사회에 회원국 확대전략이 보고된 이후 그 후속조치와 추진방향을 놓고 미국, 일본 및 EC 등 주요 회원국의 의견이 대립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OECD에서는 영국의 제안으로 OECD 가입 후보국 선정에 앞서 먼저 2~3년간 비회원국 관련 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이 무게를 얻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비회원국 관련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유엔개발계획(UNDP)등 국제기구와 함께 2004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3년 계획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국가들의 개발을 위한 공공거버넌스(governance) 개선과 투자환경개선사업(MENA Initiative)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중동과 북아프리카국가들의 발전에 OECD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우리나라도 동 사업의 취지를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자발적 기여금 제공과 전문가작업반회의 공동의장 수임 등을 통해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도 OECD는 회원국들의 참여를 통해 개도국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계속 발굴, 추진해나감으로써 국제적 역할을 더욱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